



고양시 하천 친구들

조류편 (3)



고양이하천에는 어떤 조류들이 살고 있을까요 ??





꼬마물떼새

몸길이 16cm이며 몸의 윗면은 연한 갈색입니다. 허리와 위꽂지뒤통은 어두운 빛갈이며 아랫면은 흰색입니다.천적이 알을 낳은 동지에 가까이 오면 어미새는 날개를 다친 듯한 행동을 해서 천적을 멀리 떨어진 곳으로 끌고갑니다.



대백로

몸길이 약 90cm로 왜가리과 조류 중 가장 큰 종류입니다.
한국에서는 드물게 볼 수 있는 겨울새로 온몸이 흰색이고
눈앞의 피부가 드러난 부위만 녹색입니다. 번식기의 부리는 검고 겨울에는
노랗게 됩니다. 입아귀가 눈 뒤쪽까지 찢어진 점이 종백대로와 다릅니다.



민물가마우지

몸길이 89~102cm이며 뺨과 목은 흰색이고 나머지는 검은색입니다.
번식기의 깃털은 옆구리에 흰 얼룩무늬가 있습니다.
먹이는 물고기가 주식이며 잠수를 잘해서 헤엄쳐 다니다가
물 속에서 먹이를 잡아먹습니다.



청딱따구리

몸길이 약 30cm이며 수컷의 등은 녹색을 띠며 아랫면은 회색입니다.
이마의 빨간색이 두드러지며 머리의 나머지 부분은 회색입니다.
암컷은 이마에 빨간색 부위가 없는 점 외에는 수컷과 비슷하나 전체적으로 회색이 강합니다.
사람이 다가가면 나무에 꼼짝하지 않고 머무르는 습성이 있습니다.



흰뺨검둥오리

몸길이 약 61cm의 대형오리입니다. 몸 전체가 다갈색이고 머리와 목은 연한 갈색, 배는 검은 갈색입니다. 다리는 선명한 오렌지색이며 부리는 검정색이나 끝은 노란색입니다. 한국에서는 전국에서 흔히 번식하는 유일한 여름오리이자 텃새입니다.

모니터링 참여

고양자연생태연구회
더불어성사천
어린이식물연구회
에코코리아
하천생태동아리

- 2019년 고양시하천네트워크 단체에서 모니터링한 자료입니다 -



고양하천네트워크